



권두칼럼

- 권두언 1
 - 박진우 |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원장
 - 남석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본부장



[권/두/언]

박진우

|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원장

최근 브라질 대학 관계자들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상호간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진 브라질에서조차 에너지의 소중함으로 설파하였으며, 다양한 방향에서의 상호협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바이오에탄올 뿐만 아니라 태양광 기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크며, 더 나아가 분산전원 분야 등 에너지 전반적인 기술 및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 예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에너지 분야의 큰 수출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업 역량이 이러한 기회를 제때에 살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인허가, 조달 등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인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 등은, 미디어를 통한 문화 전달 방식도 있지만, 현지인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국가의 핵심인력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기관 핵심인력을 초청,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그린스쿨대학원은 동 사업의 에너지 분야 수행 기관으로 올해 선정되어, 내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화(에너지·환경)와 융합(정책·기술, 고려대·KIST)을 추구하는 학교의 성과가 크게 가시화되는 대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다음 그린모니터부터는 새롭게 그린스쿨 식구가 되는 외국인학생들의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수록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산업 발달 육성과 같이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경제 원동력을 찾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 역량을 최대한 증대시켜 나감과 동시에, 열린 사고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부단한 소통과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린스쿨의 가장 큰 장점이 특화와 융합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더욱 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도 클린파워 제너레이션, 지속가능 도시환경 구축, 카본사이클 자원화라는 그린스쿨의 세부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 및 활동을 섹션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모니터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많은 피드백과 성원을 아낌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unwoo Park

[권/두/언]

남 석 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본부장



세계에너지위원회(WEC)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체계에서의 장기적이면서 구조적인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이 적극적으로 탈핵 정책을 실행해 온 것이 바로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에너지전환 의미는 화석연료와 같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라 할 경우 우리는 제일 먼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떠올리게 됩니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11%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2030년경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최근 케냐를 방문해서 한국의 기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한국의 신념, 저는 한국이 에너지·환경 분야에 있어서 또 다른 기적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 기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에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강한 제조업 역량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과 함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책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부단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결과, 독일은 에너지 집약적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자신감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함께 에너지·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한국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Made in Korea” 경제를 일구어 나가야겠습니다.

에너지·환경 분야에 특화된 최고수준의 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린스쿨대학원은 해외 선도 연구기관들과 그동안 꾸준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11일 양일에 걸쳐서 해외 협력기관들과 같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 및 정책 부문에서의 다양한 생각들을 교환하는 유익한 컨퍼런스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총 6개국, 16개 기관, 25명의 연구자들이 참석, 상호간에 발표·토론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번 그린모니터 제6호지에 특집세션으로 수록해 보았습니다. 에너지전환이란?, 추구하는 목적은?, 관련해서 예상되는 도전과 장애요인은?, 과연 어떠한 해결책이 최선일지?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비록 독자 여러분들이 포럼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호 지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특화전문대학원 연계 학연협력지원사업 덕분에 이렇게 그린스쿨이 성장하고 매호 그린모니터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관계자 여러분, 그린모니터 독자 여러분, 그리고 그린스쿨 편집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 석 우